

여성감독 영화 잇따라 개봉... 다양성·외연 확대

‘우리집’·‘별새’·‘아워바디’·‘메기’·‘82년생 김지영’
광주극장, 24일 임흥순 감독 ‘려행’ 상영 후 관객과 대화

국내의 영화계에서 주목받은 신인 여성 감독 영화가 잇따라 관객을 찾는다. 한동안 뜸했던 여성 감독 영화가 올해 극장가에 다양성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극장은 22일 윤가은 감독의 ‘우리집’과 29일 김보라 감독의 화제작 ‘별새’를 개봉한다.

‘우리집’은 전작 ‘우리들’로 호평받은 윤가은 감독이 4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이다. 가족 문제를 해결하려 어른들 대신 나선 동네 삼촌사 아이들의 빛나는 용기와 찬란한 여정을 담은 작품이다.

아이들의 눈높이로 전하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가족의 모습, 아름답고 섬세한 미장센과 파스텔 톤의 색감, 뜨거운 여

를 배경으로 역동성 가득한 아이들의 모습 등이 아름다운 색채와 담백하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담겼다.

‘별새’는 1994년을 배경으로 14살 소녀 은희의 일상을 세밀화처럼 그려낸 작품이다. 호기심 많은 중학교 2학년 소녀가 가족을 비롯해 다양한 구성원과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한 뼉씩 성장하는 과정을 차분하게 좇아간다.

김보라 감독의 장편 데뷔작으로 각종 우수 영화제에서 25개 상을 받아 개봉 전부터 화제가 됐다. 특히 신예 박지후가 세상이 궁금한 ‘은희’ 역을, 매력적인 배우 김새벽이 세상을 이해한 ‘영지 선생님’ 역을 맡아 인상적인 열연을 펼쳤다.

거장 봉준호와 박찬욱 감독이 ‘우리집’과 ‘별새’를 각각 응원하고 나서 관심을 끈다.

박찬욱 감독은 ‘별새’를 본 뒤 “은희가 어떤 어른으로 성장해가는지 보고 싶다”며 김보라 감독에게 “서둘러 속편을 내놓으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9월에는 한국영화아카데미 출신 한가람 감독의 ‘아워 바디’가 관객을 만난다. 영화 ‘동주’와 ‘박열’로 강한 인상을 남긴 배우 최희서가 주연을 맡았다. 불확실한 미래에 지친 8년차 행정고시 준비생 자영이 ‘달리는 여자’ 현주를 만나 달리기 시작하면서 세상 밖에 나오게 되는 이야기다. 최희서는 이 작품으로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올해의 배우상을 받았다.

이옥섭 감독의 ‘메기’는 9월 26일 개봉을 확정했다. 영화는 믿음에 관한 영동하고 발칙한 상상을 담은 미스터리 평가 코미디 장르다.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CGV아트하우스상, KBS독립영화상, 시민평론가상, 올해의 배우상까지 4관왕을 거머쥔 작품으로 이주영, 문소리, 구교환 등이 출연한다.

10월 말에는 ‘82년생 김지영’이 개봉한다. 2016년 조남주 작가가 발간한 동명 베스트셀러 소설이 원작으로,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진정엄마, 언니 등으로 빙의된 증상을 보이는 평범한 30대 여성 김지영에 관한 이야기를 그린다.

한편 지난 8일 개봉해 잔잔한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3주째 상영중인 ‘려행’의 연출자 임흥순 감독과 관객과의 대화가 24일 오후 5시 독립기획사 임인자 씨의 진행으로 영화 상영 후 마련된다.

영화 ‘려행’은 지난 2015년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휴먼 아트다큐멘터리 ‘위로공간’으로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에서 한국 최초 은사자상을 수상한 임흥순 감독의 세번째 장편이다.



복에서 남으로 각기 다른 사연과 서로 다른 여정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성 10인의 기억과 삶, 그리고 바람

을 실제와 허구를 넘나들며 새로운 시선, 색다른 시도로 담아내고 있다. 문의 062-224-5858. /이연수 기자

전국 청소년 방송콘텐츠 경연대회

내달 2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서

시청자미디어재단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는 오는 9월 26일 '제12회 전국 청소년 방송콘텐츠 경연대회'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미디어·방송 분야 진로를 계획하는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다.

특히, 올해는 '2019 광주 ACE Fair'의 특별행사로 공연조의 창작무대를 방송 조가 실시간 녹화된 콘텐츠로 경연을 펼치게 돼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대회의 가장 큰 매력은 학교에서는

접할 수 없는 실제 방송 장비를 활용해 무대에 설 기회가 많지 않은 청소년 공영팀의 작품을 촬영한다는 점이다. 참여 학생들은 뮤지컬, 연극, 댄스 등 다양한 주제의 창작 무대를 선보이며 준비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본선 무대가 끝난 후 실시간 심사를 통해 당일 시상식을 진행해 생생한 현장감을 더할 계획이다.

이달 말 예선 심사를 통해 최종 본선에 진출하는 10개 팀은 광주, 부산, 강원, 대전, 인천, 서울, 울산 등 지역별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9월 중 사전중계교육을 받는다. 방송 장비에 익숙하지 않은 참가자



지난해 열린 '전국 청소년 방송 콘텐츠 경연대회' 본선에 오른 학생이 직접 카메라로 촬영을 하며 경연을 펼치고 있다.

들도 교육을 통해 본선 경연을 철저히 준비할 수 있다.

대상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최우수상에 광주시장상, 우수상에 광주시 교

육감상, 장려상에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상 등 본선 진출 10개팀 모두에게 상장과 부상이 수여된다. /이보람 기자

광주 청소년 캄보디아서 국제교류

현지인 마을 탐방·문화공연·봉사활동 펼쳐

광주시와 한국청소년인권센터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6박 8일간 캄보디아에서 '광주 청소년국제교류활동'을 운영했다.

광주 청소년들은 캄주 정부 교육청을 방문해 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현지인들이 사는 마을을 직접 탐방했다.

또 캄보디아 학생들에게 한글과 영어, 컴퓨터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캄주의 캄보디아 광주고교육문화센터를 방문해 광주의 마음을 나눴다.

캄주의 앙프놈터치 초등학교를 방문한 광주청소년국제교류단은 단원들이 직접

모은 학습품과 생필품을 기부하고 교육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현지 학생들과 미술교실, 페이스페인팅, 보드게임, 피구, 줄넘기, 단체놀이 등을 하고, 단원들은 케이팝 댄스와 태권무 등의 공연을 선보여 현지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현지 고등학생들과 함께 체육활동과 문화공연 교류활동을 펼쳐 한국과 광주의 문화를 전파했다.

교류단은 이삭공동체에서 내년 개교를 목적으로 건립중에 있는 미래학교 부지에서 휴집학교 짓기 프로젝트 봉사활동에 참여해 굵은 땀방울을 흘렸다.

/이연수 기자



대금연주자 박경민.

음악으로 꼬집는 대한민국 현실

108번째 달거리 공연 26일...대금 박경민 초청

108번째 '뿡 만드는 공연 김원중의 달거리' 공연이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 광주피크닉극장에서 열린다.

'이웃'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이웃사람, 이웃집, 이웃 마을 등 서로에게 힘이 돼 주며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는 의미가 담겼다.

주변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힘들게 하는 현실을 꼬집으며 김원중과 느티나무밴드, 소프라노 유희민, 강윤숙의 재즈여행, 팝페라 박맹성어즈와 초대손님 박경민씨 등이 출연해 한반도에 다시금 평화의 바람이 불기를 기원한다. 이와 함께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에 대한 삶의 이

야기와 더불어 누군가에게 참 좋은 이웃이 되는 희망의 씨앗도 전하고자 한다.

초대손님 박경민 씨는 은은하면서도 심금을 울리는 대금 연주로 이름 모를 사람들을 기억한다. 놀림 당하고 천대 받고 내팽개쳐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선사하고자 한다.

국립국악관현악단 대금수석인 박 씨는 "세상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몰아 버린 기억되지 못한 운명들을 기억하는 것이 음악인으로서 주어진 소명"이라고 전했다. /이보람 기자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수 있습니다

지방신문을 살려야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고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전남매일 광주 시내지국 현황

■ 동구		
중앙	223-2378	010-3635-1195
충장	233-4123	010-7755-8824
학운	225-0651	010-3640-2454
■ 서구		
광천	374-2126	010-9602-2565
쌍촌	372-6659	010-6636-2775
화정	381-2156	010-4235-0902
상무	372-7625	010-5013-3889
풍암	681-3179	010-6634-5084
■ 남구		
봉선	653-1920	010-9474-0212
진월	653-6900	010-5662-7449
월산		010-8245-1625
남부	651-1833	010-2943-8016
송하		010-8620-1925
■ 북구		
운암	525-3761	010-6886-3761
양산	574-3745	010-2646-3205
오치	261-9461	010-3629-0146
문흥	261-9462	010-7601-4480
일곡	573-3200	010-9273-0105
두암	264-7074	010-2684-6091
중흥	433-1503	010-4601-2080
북부	222-2524	010-2656-4543
■ 광산구		
첨단	971-7374	010-3613-2312
신가	952-4864	010-3648-2549
월곡	952-1687	010-3612-1687
우산	951-9954	010-5018-0024
수완	959-1414	010-3101-2526
송정	941-7070	010-3976-0123
혁신		010-4623-9622

■ 전남매일 시·군 지사 현황

광산지사	010-3601-1102	담양지사	010-4154-8277	영암지사	010-4624-8409
목포(갑)	010-3272-2765	곡성지사	010-6764-6100	무안지사	010-3621-8989
목포(을)	010-3635-6777	구례지사	010-5431-4006	함평지사	010-3773-2522
목포(병)	010-9359-1648	고흥지사	010-9151-2828	영광지사	010-8666-2882
여수지사	010-8648-1236	보성지사	010-5259-6441	장성지사	010-3666-1300
순천지사	010-2547-7890	화순지사	010-3666-5888	완도지사	010-5619-7020
나주(갑)	010-6401-9370	장흥지사	010-3613-6114	진도지사	010-3624-4777
나주(을)	010-3713-7458	강진지사	010-6646-1241	신안지사	010-4627-1472
광양지사	010-2630-1628	해남지사	010-8181-2627		

M 전남매일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중흥동) 대표전화 062) 720-1000 / 구독신청 및 배달문의 062) 720-1098
팩스: 월간국·관리국·사업국·판매국·광고국 062) 720-1020 / 편집국·기사제보 062-720-1080-82
이메일 편집국: jndn@chol.com 관리국: jsm7139@nate.com 월간국: jnreviews@hanmail.net
광고국: jnmi1000@hanmail.net 마라톤대회: 0518run@hanmail.net 글짓기대회: peace20090818@hanmail.net